

# '청년이 모이고 머무르며 함께 살아가는 전주'

### 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위한 시행계획 수립·올해 5개 분야 86개 사업 본격 추진

청년들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는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추진 방향과 세부 중점사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년 도전기회 확대 △체감형 정착지원 강화 △청년 주도 참여기반 강화를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의 3대 방향으로 정하고, 청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과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시는 '청년이 모이고 머무르며 함께 살아가는 전주'라는 비전 아래 총 54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일자리 △주거·금융 △문화·교육 △복지 △참여·관리 총 5개 분야 8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는 34개 사업에 22억 600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인력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 및 청년농업인 발굴·육성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또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출향청년 채용지원 △청년취업2000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올해 신규사업인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창업 활성화에 나선다.

주거·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8개 사업에 166억 8400만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청춘★별채' 등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을 상시 제도로 전환해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며, 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두배적금과 내일저축계좌 지원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문화·교육 분야는 14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마련,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청년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시는 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학업과 역량 개발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시는 복지 분야 16개 사업에 86억 8200만 원을 투입해 지원준비

년과 군복무 청년, 신혼부부, 임신부 등 상황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청년부부 결혼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고, 청년이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교통비 지원 △면접준비 무료대여 등 취업준비 지원도 확대된다.

끝으로 시는 참여·관리 분야의 경우 14개 사업에 42억 3700만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이음전주를 거점으로 한 청년협의체 운영과 정책 포럼·간담회, 청년희망단 운영,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정책과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을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정책 대상에 외국인 청년까지 포함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청년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을 추진한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청년이 전주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2026년 청년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듬었다"면서 "오늘 심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올해도 생일을 축하합니다"

### 전주시 드림스타트, 생일축하 케이크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올해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정서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축하 케이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일을 행하기 힘든 아동들이 자신의 특별한 날을 소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생일을 맞이한 취약계층 사례관리아동 400여 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케이크를 전달하고 축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러한 생일축하 케이크 지원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



어, 축하받는 경험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아동의 생일을 기념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구성원 간 감정적 교류가 늘어나고, 긍정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전국 최장수 경로당 '기령당' 서소통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3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기령당'을 찾아 신년 인사를 전하고, 지역사회 노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올해로 420주년을 맞는 역사를 지닌 기령당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사회 노인들을 찾아 공경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지난 2023년 3월 30일 전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령당은 명실상부 전주지역 노인복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40여 명의 노인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우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노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경로당 이용자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우 시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내 경로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령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세대를 잇는 지혜의 보고이자 전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이 전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도 노인 복지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확대 등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후백제 역사문화 공유 7개 시·군, '복원·관광자원화' 머리 맞대

###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실무회의 갖고 현안 논의

전주시를 비롯해 후백제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국내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도시 전주시)는 지난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소속 7개 회원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아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와 체계적 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소속 7개 시·군은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요 후백제 문화유산의 국가유산지정 활동 등 공동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 방안 △7개 시·군의 주요 후백제유적에 대한 국가지정유산(사

적 등)에 대한 공동 대응 △2026년도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및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협의회는 올해를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단순 복원을 넘어 지역의 핵심 문화 콘텐츠 및 산업으로 확장하는 전환기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의회 소속 7개 시·군은 연계사업에 대한 협력과 후백제역사문화권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후백제역사문화권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시·군별 세부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3차) 사업에 후백제역사문화권 주요 유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소속 7개 회원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아 후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와 체계적 복원, 관광자원화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현재 국가지정유산(사적 등)의 담보상태에 있는 △전주 종광대 및 동고산성 △신주 견훤산성 △논산 개대사 등 주요 유적에 대해서는 신속한 국가지정유산(사적 등) 지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 지원과 신속한 지정 방안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실무회의에서 울

해를 기점으로 7개 시·군을 잇는 '후백제 역사 탐방 연계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각 지역에 산재한 후백제 유적과 성곽 등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후백제 로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과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후백제 학술대회, 각 지자체 탐방 프로그램 개발 협력 및 진행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 지역 대학생 4명, 세계지방정부연합아시아지부 파견

전주시는 26일부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이하, UCLG ASPAC)에 지역 대학생 4명을 인턴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UCLG는 140개국, 24만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 가입한 기관으로, UCLG ASPAC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주시는 국내 8개 회원 도시와 함께 2018년도부터 활동해왔다.

파견되는 청년인턴들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4주간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에 위치한 UCLG ASPAC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전주시와 국제기구 간 소통 및 사업 추진 협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주시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의 해외 홍보, 세계 지방정부연합 주요 동향 및 정책 조사·공유 등 다양한 국제 실무 경험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파견에서는 '글로벌전주'라는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전주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